

실전모의고사Ⅱ 정답																			
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②	⑤	⑤	⑤	③	⑤	①	②	③	②	③	①	③	①	②	①	②	⑤	④	④
21	22	23	24	25	26	27	28	29	30	31	32	33	34	35	36	37	38	39	40
②	④	②	③	①	②	⑤	④	④	④	④	④	④	④	④	③	④	②	①	③
41	42	43	44	45	46	47	48	49	50	51	52	53	54	55	56	57	58	59	60
③	⑤	③	③	②	④	②	②	①	⑤	⑤	①	③	①	⑤	③	③	①	②	④
61	62	63	64	65	66	67	68	69	70	71	72	73	74	75	76	77	78	79	80
⑤	⑤	③	④	③	②	③	②	④	①	①	⑤	①	②	③	③	④	④	⑤	①

요양보호론(필기시험)

1. ② P18

①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한다. ③ ⑤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④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.

2. ⑤ P28

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, 노후생활을 지원해야 한다. ② 재가중심 ③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강화 ④ 공적과 사적 부양 모두 필요

3. ⑤ P37

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②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③ 국민의 노령,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④ 실업의 예방,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,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

4. ⑤ P46

그 밖의 서비스는 향후 노인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설정해 놓은 조항으로, 현재 그 밖의 서비스에는 복지용구 급여만 포함되어 있다.

5. ③ P52

① 등급판정위원회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④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한다.

6. ⑤ P58

① 15% ② 20% ③ 15% ④ 전액

7. ① P81

② 맥박, 호흡, 체온,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,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 ③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④ 대상자의 신체,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,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, 간호사,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 ⑤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

8. ② P77

9. ③ P106

10. ② P116

11. ③ P120

① ② 육체적 ④ ⑤ 언어적

12. ① P123

13. ③ P128

대상자가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'유인·알선'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 윤리원칙에 어긋나며,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.

14. ① P135

15. ② P141

① 가까이 ③ 큰 근육 ④ 넓힌다. ⑤ 낮춘다.

16. ① P162

② 경과가 길고 ③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 ④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 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,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.

17. ② P171

18. ⑤ P175

19. ④ P176

노인 천식 대상자는 미세먼지, 황사 등이 심하면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.

20. ④ P188

21. ② P196

22. ④ P202

피부는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 주는 것이 좋다.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.

23. ② P208

24. ③ P219

① 발 씻고 말리기 ④ 발톱 일자로 자르기 ⑤ 양말착용

25. ① P222

② 가족에게 대상자를 많이 지지해주도록 조언하는 것이 좋다.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③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. ④⑤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린다.

26. ② P225

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말로 지지한다. ③ 접촉하는 사람의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. ④ 밤에 불을 밝혀둔다. ⑤ 가까이한다.

27. ⑤ P243

① 인지기능개선제,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 약물을 복용한다. ② 가급적 단순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다. ③ 행동 수정을 위해 강화, 필요시 격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.

28. ④ P254

①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한다. ②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 금한다. ③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⑤ 유연한 체조나 정적 스트레칭을 활용하여 최소한 5~10분 동안 안정 시의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

29. ④ P259

① 전립선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. ② ⑤ 강심제, 이뇨제, 항고혈압제, 신경안정제,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. ③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즘 지연, 남성에게는 발기지연이 나타난다.

30. ④ P270

파상풍-디프테리아-백일해 예방접종은 10년마다 추가접종하는 백신이다. 인플루엔자(독감) 매년 1회, 폐렴구균 65세 이상에서 필요, 대상포진 60세 이상(추가접종 불필요)

31. ④ P274

① 고온·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 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병 ② 땀을 많이 흘린 뒤 발생하며, 심한 갈증, 피로감, 현기증, 식욕감퇴, 두통, 구역, 구토 등이 발생 ③ 실신(일시적 의식소실)/ 어지럼증 ⑤ 발이나 발목의 부종,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

32. ④ P318

33. ④ P343

사례회의는 주로 서비스와 관련

34. ④ P631

② 보온을 위한 전기기구 사용하지 않는다. ③ 조명의 밝기를 눈부시지 않게 낮춘다. ⑤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고 대상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.

35. ④ P636

①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서면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② 일반적인 진료과정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. ③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·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. ⑤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, 물,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.

36. ③ P282

37. ④ P286

38. ② P288

나-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이다.

39. ① P291

40. ③ P293

① 신체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. ②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. ④ 대상자를 중심으로 ⑤ 여기, 이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방향으로 설명한다.

41. ③ P354

① 가슴과 배꼽 사이 ② 안쪽 깊숙이 앉게 한다. ④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이어야 안전 ⑤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안전하고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

42. ⑤ P355

①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. ②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. ③ 반좌위(반 앉은 자세)가 좋다. ④ 신맛이 강하면 침이 나와 사레가 들 수 있다.

43. ③ P361

①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 넣거나 빼면 안 된다. ②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 등에게 알린다. ④ 사용할 때마다 세척 ⑤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.

44. ③ P366

45. ② P370

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다.

46. ④ P373

① 밑에 ② 높이가 같도록.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③ 건강한 쪽 ⑤ 매번 깨끗이 씻어 배설물이 남아 있거나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.

47. ② P375

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.

48. ② P377

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음을 알린다. ③ 즉시 시설장 등에게 보고한다.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의 교환·삽입·세척 절대 안 된다. ④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섭취를 권장한다. ⑤ 소변주머니를 방광(아랫배)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.

49. ① P386

②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이고 고개를 약간 숙인다. ③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(브러시)를 바꾸어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는다. ④ ⑤ 의식 또는 치아가 없거나 연하장애가 있는 경우,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이다.

50. ⑤ P389

① 주방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. ② 위쪽 ③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변형 ④ 클래스프(의치가 구강 내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)를 손톱으로 끌어 올려 빼낸다.

51. ⑤ P395

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 사용, 머리카락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드라이샴푸를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.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낸다.

52. ① P397

손톱은 둥글게,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.

53. ③ P400

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며 닦고, 옆으로는 눈 밑 → 코 → 뺨 쪽으로, 아래로는 입 주위 → 턱 → 귀의 뒷면 → 귓바퀴 → 목 순서로 닦는다.

54. ① P406

② 5분 ③ 건강한 쪽 다리,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 놓게 한다. ④ 다리, 팔, 몸통의 순서로 물로 행구고 회음부를 닦아낸다. ⑤ 욕조에서 나오게 하여 목욕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.

55. ⑤ P415

① 조이지 않는 것 ② 단추나 지퍼는 매직테이프로 바꾼다. ③ 앞 여밈이거나 단추가 있는 옷이 좋다. ④ 건강한 쪽부터 벗고,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.

56. ③ P420

57. ③ P426

①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. ②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 ④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편다. ⑤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.

58. ① P429

59. ② P437

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리거나, 손잡이 부분을 잡고 들어올린다.

60. ④ P439

61. ⑤ P454

62. ⑤ P520

① 나물류는 먹기 직전에 무쳐서 제공한다. ② 국수 등 면을 삶을 때 소금 간을 따로 하지 않는다. ③ 두부와 가공식품(햄, 어묵 등)은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한다. ④ 소금과 장류 양을 줄이는 대신 마늘, 파, 생강, 양파 등 향미채소를 이용한다.

63. ③ P525

① 반숙 ② 상대적으로 삼키기 쉬운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 ④ 마시는 것보다 떠먹는 형태(고형식) ⑤ 작은 숟가락 사용

64. ④ P534

① 상온이나 따뜻한 물로 해동하지 않는다. ② 안쪽 ③ 식힌 후 냉장고에 넣는다. ⑤ 채우지 않는다.

65. ③ P546

①⑤ 모섬유나 견섬유와 같이 흡습성이 큰 천연섬유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해충의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보관할 때는 방충제 사용 ② 화학변화를 일으켜 옷감이 변색, 변질되므로 한 가지씩만 사용 ③ 천이나 신문지에 싸서 넣는다. ④ 보관용기의 위쪽 구석

66. ② P546

① 대상자 및 가족과 상의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 ②③ 시설장 등에게 보고하여 조절 ④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조절한다. 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67. ③ P568

① 손잡이가 크거나 약간 무거운 것 ②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해준다. ④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 ⑤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좀 더 걸쭉한 액체음식을 제공한다.

68. ② P570

①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. ③ 야간에 수분섭취를 제한한다. ④ 벨트나 단추 대신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 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,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.

69. ④ P573

① 간략하게 ② 혼자 두지 않기 위하여, 목욕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준비한 후 목욕 시작 ⑤ 샤워보다는 통목욕

70. ① P579

71. ① P580

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장애가 심해지므로, 산책과 같은 야외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돕는다.

72. ⑤ P581

73. ① P582

74. ② P583

75. ③ P584

76. ③ P585

77. ④ P586

78. ④ P592

①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한다. ②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하여 설명한다. ③ 앞에서 ⑤ 한 번에 한 가지씩

79. ⑤ P641

① 난로 곁에는 불이 붙는 물건이나 세탁물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. ②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해야 한다. ③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. ④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 두고 사용방법을 익혀둔다.

80. ① P664

패드 1은 오른쪽 빗장뼈 아래, 패드 2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